

도여베이르트와 기독교 철학

(R. Nash 저, 김기곤 역 / 성광문화사 : 서울)

오창희

신앙과 이성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각 학문 영역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 질문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 즉 기독교적 학문을 추구하는 기독교 학도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스펅크스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그것에 답하는 작업 자체가 또 하나의 학문 영역을 형성할 만큼 중요하면서도 역사가 깊은 문제이다.

사도시대 이래로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오순절 사건 이후 복음이 전세계로 전파되어 가면서 당시의 기독교의 지도자들(교부들)은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에 대해 선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변증적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해결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해답은 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철학은 회랍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문학선생이라고 주장한 사람(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있었는가 하면, 철학은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비기독교적 요소로 생각한 사람(터툴리안과 키프리안)도 있었다. 또 이 두 가지를 종합하고자 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 두 사람의 종합은 오늘날 개신교와 카톨릭에서 각기 수용되어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현대의 고민과 상황이 과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논의의 차원이 단순히 '그 관계가 무엇이나'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주관심이 바뀌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논의에 대한 결론이 잠정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내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앙과 이성의 각 영역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각 학문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어떠한 위치와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가? 이러한 현대적 질문은 바로 기독교적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새로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20세기에 오면서 화란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 이제껏 제시되었던 어떠한 답변들 보다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해답이 여기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나온 지식체계는 일반적으로 '암스테르담 철학', 또는 '기독교철학'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 암스테르담 철학을 이끈 핵심 인물로는 여러 사람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도여베이트르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기독교 철학의 핵심적인 이론이 거의 그의 연구에 의해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다. 도여베이트르는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카이퍼 연구소를 거쳐 자유대학교에서 법철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다. 그는 원래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서양철학과 개혁주의 신학에 깊은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철학을 하나님의 창조 구조를 인식하며 그것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학문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철학은 특히 '우주법칙 이론 철학'이라고도 일컬어 진다.

도여베르트의 철학은 화란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지에까지 확산되어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하여 도여베르트 자신의 저서 일부와 도여베르트 철학을 소개하는 몇권의 책들이 번역되어 나와 있다. 넷쉬의 「도여베르트와 기독교 철학」(원저명은 「도여베르트와 암스테르담 철학」임)도 그 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대중들이 도여베르트 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넷쉬는 미국에서 태어나 브라운 대학에서 석사학위(MA)를 받은 침례교 목사로서, 1960년 이래로 Houghton College에서 철학을 가르쳐 왔다. 이 책은 아마도 그가 연구하고 가르쳐 왔던 도여베르트 철학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일 것이다.

저자가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 책은 2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한다. 첫째는 당시 미국에서 막 소개되고 있던 도여베르트 철학을 더 많은 독자에게까지 소개하고자 함이며, 두번째는 이미 미국에서 출판되어 소개되어 있던 도여베르트 사상과 도여베르트가 장차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가 특히 두번째의 목표를 염두에 두었던 이유는, 기독교 철학계에서는 이미 도여베르트 사상에 대한 비판이나 토론들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 이전까지의 소개서들이 도여베르트 사상을 피상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 책을 출판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책이 출판된 때(1962년)의 미국의 상황은 이 책이 번역된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던 것 같다. 따라서 그 두 가지 목표로 씌여진 이 책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도 시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단순한 도여베르트 사상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갖는 문제점까지 지적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이 갖는 지면의 한계성(영어판 109 페이지, 한국어 번역판 120쪽)으로 인해 이 책이 다루는 영역은 방대한 도여베르트의 철학체계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다. 단지 기본적인 몇가지 원리들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 책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도여베이트의 핵심적인 몇가지 사상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저자는 먼저 도여베이트 철학의 뿌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와 칼빈, 그리고 성어 거스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어거스틴의 입장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믿음의 전제 위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 준 최초의 입장이다. 이 입장은 '어떤 사람의 전이론적 입장(pre-theoretical commitment)이 그의 철학적 방향을 결정한다'고 한 칼빈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이론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도여베이트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유산 위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동인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각 피조물들의 양상 구조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도여베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이 세계와 하나님은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존재론적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양자간에는 신분상의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한 이 세계를 떠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질서 유지에 관계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신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은 범신론의 주장처럼 우주에 내재된 존재도 아니며, 또 이신론의 주장처럼 세계를 창조하신 후 세계로부터 손을 떼고 계신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해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무질서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각 창조물들에 질서와 법칙을 부여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그 자신의 존재와 질서를 모두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실 때는 이 세계는 그 질서를 잃게 되며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세계는 그것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또한 의미(meaning)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주의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시며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이 법칙의 지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들 위에 계신다. 따라서 피조물에 적용되어야 할 이론적 사고를 창조주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범주착오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 세계에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질서가 있으며 그것은 양상, 혹은 법칙 영역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주의 법칙 영역은 다음의 순서대로 그

것의 최저단계에서 최고단계에 이르기까지 1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수적 양상, 공간적 양상, 운동적 양상, 물리적 양상, 생명적 양상, 심리적 양상, 분석적 양상, 역사적 양상, 언어적 양상, 사회적 양상, 경제적 양상, 미적 양상, 법적 양상, 윤리적 양상, 신앙적 양상. 이 각각의 양상들은 하나의 독립된 법칙 영역들로서, 어느 하나가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나온 많은 주의(ism)들은 이 영역들 중 어느 하나를 절대시하여 다른 양상들은 그것으로 환원시키려고 한데서 생겨난 것들이다. 또 이 양상들은 각기 순서대로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분석적 양상을 기점으로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하위단계의 양상들은 비규범적인 것들인데 반해, 상위의 양상들은 규범적인(normative) 것들이다. 따라서 수적 양상에서 심리적 양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직접 통치하시므로 인간이 그것을 어길 수 없는 것인데 반해, 분석적 양상 이후부터는 그 법칙이 인간을 통해서 시행되는 관계로 인간이 그것을 어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양상들은 그 분야를 연구하는 제반 학문들의 연구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수적 양상은 수학의, 물리적 양상은 물리학의 생명적 양상은 생물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의 대상이 되는 창조물의 각 양상들은 객관적인 질서들인데 반해 이러한 양상들을 연구하는 학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학문을 탐구하는 이성적 작업은 그 이전에 존재하는 신앙적 동인에 의해 그 방향성이 지배되기 때문이다. 과거 세속적인 철학자들은 이성의 자율성과 자충족성을 믿어왔다. 즉 이성은 무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해 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처럼 이성의 근거를 이성 자체 속에서 찾고자 하는 입장, 즉 아르키메데스 기점을 이성 속에서 찾고자 하는 입장은 '내재주의(immanent)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상의 아르키메데스 기점은, 내재주의 철학의 주장과는 달리, 그 내부에 있을 수가 없다. 모든 학문 및 이성적 사고는 그것의 외부에 아르키메데스 기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밖에 있는 전-이론적인 계기, 즉 신앙적 동인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된다. 모든 사람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마음, 혹은 자아의 신앙적 동인에 의해 그의 이성적 작업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떠한 학문도 중립적일 수 없으며 자충족적일 수 없다.

이 책의 저자는 이상과 같이 도여베이트의 사상을 소개한 후 마지막 장에서 도여베이트 철학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도여베이트 사상에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긍정적인 측면과 비판되어야 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먼저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세속철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모든 이성적 작업의 근거가 되는 전이론적인 종교적 동인의 존재를 명료하게 보여 준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 평가되어야 할 도여베이트의 업적이다. 그리고 일반철학에서 소홀히 했던 '순수경험(naive experience)'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과 우주의 법칙영역의 구조를 제시해 준 것, 그리고 칸트의 비판적 작업이 불충분했음을 입증한 것 등도 중요한 그의 업적이다. 거기에 반해, 도여베이트가 사용한 언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애매한 것들이 많으며, 이것들로 인해 실질적인 문제가 은폐되거나 애매성의 오류가 범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자아, 개체성의 기초에 대해 이론적 사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다소 회의주의적 요소를 남겨 놓았다는 점 등은 그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도여베이트의 철학이 종교적 전제 위에서 성립해 있기 때문에 비기독교 철학자들에게는 별 호소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의 철학은 신적 계시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는 세속철학자들에게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도여베이트 철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시도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저자는 다음의 몇가지 점을 제안한다. 첫째 도여베이트 철학의 용어들에서 애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둘째 이 책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비판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영미 계통의 논리실증주의나 언어분석철학 등에도 그 비판적 함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여베이트 철학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책이 그러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그의 희망의 말로 글을 맺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책이 미국에서 발간되었을 때의 상황은, 도여베이트 철학이 소개된 정도와 그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책의 성격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담고 있는 비판적 요소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으려면 다소 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도여베이트 철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것 같다. 또한 이 책을 좀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문과 대조하면서 공부할 것을 권하고 싶다.